

國民倫理學의 體系化를 爲한 基礎研究

「國民倫理研究」誌와

大學教材에 대한 分析을 中心으로-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洪 玉 順



指導教授 金 恒 元


1983年 月 日

洪玉順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副審   인

副審 金恒元 

1983年 月 日

目 次

I. 緒 論	11
1. 研究의 目的	11
2. 研究의 範圍	12
3. 研究의 方法	13
II. 理論的 背景 ; 現代 韓國社會와 國民倫理學	15
1. 國民倫理學의 概念	15
2. 國民倫理學의 性格	17
3. 國民倫理學의 必要性	22
4. 國民倫理學의 方向	25
III. 調査分析의 結果 ; 既存 國民倫理研究의 現況	27
1. 主題別 研究의 內容	27
2. 分野別 研究動向	39
1) 倫理 및 社會思想	43
2) 韓國思想 및 韓國政治	45
3) 이데올로기 批判 및 統一問題	47
4) 政治社會化 및 教育方法	49
IV. 提言 및 結論	54
* 參考文獻	56
* 英文抄錄	60

表 目 次

〈表 1〉 「國民倫理研究」誌에 게재된 主題分類	28
〈表 2〉 「國民倫理研究」誌의 게재論文中 國民倫理學과 關聯된 主題別 分類	30
〈表 3〉 國民倫理教材의 章·節別 要目 分類	32
〈表 4〉 國民倫理教材의 章·節에 따른 主題別 分類	37
〈表 5〉 「國民倫理」誌의 時代的 研究動向	39

I . 緒 論

1. 研究의 目的

國民倫理는 大學에서 敎養必須科目으로 採擇·實施되면서 그 研究가 展開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하나의 學으로서 體系를 갖추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國民倫理가 하나의 學的 體系를 갖추려면 첫째, 고유한 研究主題가 있어야 하겠고 둘째, 主題를 体系的으로 定立·理解할 수 있는 學問的 理論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로 國民倫理學의 概念定立이 確固해야 할 것으로 전제된다.

또한 國民倫理學은 關聯學問分野를 綜合한 學問이라 하겠는데 이를 하나의 學問으로 體系化 내지 定立시킨다는 것이 큰 課業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이 分野에 對한 體系化된 知識이나 有機的인 理論에 關한 論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80年 國民倫理學會에서 「國民倫理의 學的 定立」이라는 세미나를 開催하면서 最初로 國民倫理의 學問化를 시도하였다.¹⁾ 이를 계기로 앞으로 國民倫理學의 學問的 體系化를 展望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國民倫理學의 學問的 體系化를 爲해서 먼저 大學에서 國民倫理란 科目이 採擇되지 않을 수 없었던 時代的 背景과 動機는 과연 무엇이며, 또한 實施課程에서 나타난 問題點과 是正策은 무엇인지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²⁾ 그리고 國民倫理學의 體系化를 위해서는 기존의 研究現況을 把握하여 새로운 方案을 제시하므로써 發展을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에 이 研究의 意義를 찾고자 한다.

國民倫理學은 우선 態度나 行爲의 變化를 爲한 價値觀 形成에 주된 目的이 있으므로 基本的 理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國民倫理敎育研究會가

1) 安鍾云, “國民倫理學의 綜合的 概念定立에 關한 研究.” 國民倫理研究 第12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1), p.293.

2) 韓昇助, “國民倫理敎育의 回顧와 展望,” 國民倫理研究 第10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0), p.127.

지금의 國民倫理學會로 改稱된 것은 1981年 1月인데 이는 國民倫理가 당위의식과 더불어 學的 體系를 基軸함이라고 사료된다.³⁾ 또한 初等教育에서의 「道德」 科目이 高等教育에서는 「國民倫理」 科目으로 그 名稱이 바뀐것도 그 內容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다 學問的인 體系를 갖춘다는 뜻이며 보다 認知的인 接近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또한 國民倫理는 關聯學問과의 連繫性問題가 있는데 이는 既存學問과의 複合性 내지 多樣性을 効率的으로 利用하면서 理論的 體系性을 定立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한 부담한 努力이 1973年 10月 國民倫理教育研究會를 中心으로 「國民倫理研究」誌의 創刊號를 發刊하면서 지금까지 이 分野의 研究를 進척시켜왔다. 本研究는 이들 연구의 動向을 把握함으로써 國民倫理學의 指標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關聯學問과의 關係를 考察함으로써 獨自的인 고유한 研究主題 및 理論을 規定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國民倫理學의 主流를 이루고 있는 道德, 倫理學(哲學), 歷史學, 思想史, 政治學등과 같은 分野別 內容 中心으로 考察하여 앞으로의 研究方向을 模索하는 것도 必要하리라 본다.

이러한 의도에서 國民倫理學의 概念, 必要性, 性格, 方向을 밝힌 연후에 關聯 分野別 研究의 흐름을 把握하고 앞으로 國民倫理學의 研究展望과 課題를 模索코져 하는데 이 研究의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範圍

國民倫理가 學으로서의 要件을 갖출려면 그 性格을 어떻게 設定해야 하며 研究의 對象과 方法論 내지 研究의 範圍와 課題는 어떻게 認定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國民倫理學의 研究對象과 方法論, 그리고 인접학문과의 關係등을

3) 朴仁熙, “國民倫理教育의 深化方案,” 學生理念指導세미나 論文集(서울; 乙文社, 1982), p.362.

4) 洪雄善, “國民倫理教育의 內容,” 國民倫理研究 第5號(서울; 三和印刷, 1976), p.309.

檢討하면서 과연 獨自的인 學問으로서 成立이 可能한지 타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⁵⁾

그러나 지금까지의 研究主題를 본다면 너무 좁은 領域에 집착하거나 排他的인 傾向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 10 여년간의 國民倫理의 實態를 보더라도 그 教育方法이나 學問的 獨自性에 있어서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다.⁶⁾ 또한 우리나라에서 國民倫理教育이 시도된지도 高等學校에서는

1963年度 教育課程부터이고⁷⁾ 大學에서도 1970年 2學期부터 시작되었는데 약 20年間 이 分野에 관심을 기울인 만큼 그 效果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國民倫理教育研究會를 中心으로 1973년부터 「國民倫理研究」誌를 꾸준히 發刊하여 지금까지 총 15號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國民倫理研究」誌와 大學教材에 對한 分析을 中心으로 그동안의 研究動向을 把握하여 그 흐름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國民倫理學이 指向해야 할 方向을 摸索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前述한 바와같이 이 研究는 國民倫理學의 어떤 새로운 價値體系나 學問的 定立을 確固하게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歸納的인 方法에 의해서 國民倫理學의 時代的 變遷에 따른 研究動向과 國民倫理學에 包含시켜야 하는 內容들을 그 研究의 範圍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 研究가 어떤 特定 研究誌나 教材만을 分析하여 學問의 方向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상의 研究對象이 가장 客觀性이 많을 것으로 思慮되며 有意性이 存在할 것으로 생각한다.

3. 研究의 方法

이 研究의 方法은 주로 「國民倫理研究」誌의 論文主題分析과 國內에서 出版되는 國民倫理教材中 大學에서 많이 使用되고 있는 教材의 目次分析이 될 것이다. 「國

5) 朴容憲, “國民倫理學의 性格,” 國民倫理研究 第12號(서울; 螢雪出版社, 1981), p.13.

6) 鄭明五, “國民倫理의 概念과 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現代社會와 倫理 (서울; 正和印刷文化社, 1982), p.91.

7) 洪雄善, 前揭書, p. 309.

民倫理研究」誌는 1973年 創刊號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15號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年1回 내지 年2回의 定期的인 研究發表를 하고 있음으로 劃一的인 時代區分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時代的인 研究의 흐름도 把握할 수 있겠고 앞으로의 研究趨勢도 展望할 수 있으리라 본다.

教材는 現在 國內에서 出刊되고 있는것만도 약 50여종에 달하고 있지만 이 모든 教材를 分析한다는 게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전부 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는 “國民倫理(I·II)”를 비롯하여 7卷을 研究의 對象으로 삼았다. 教材分析은 다만 目次에 나타난 題目에 한하며 必要에 따라서 教材內容의 部分的 分析·比較를 병행시켰다.

그리고 他學問과의 연관성과 더불어 分野마다 關聯性을 언급해야 될 터이지만 細部的으로는 할 수 없었고 이를 綜合한다고 볼 수 있는 國民倫理學의 4個 領域으로 區分하여 接近시켰다. 즉 첫째, 倫理와 社會思想, 둘째, 韓國思想과 韓國政治, 셋째, 이데올로기批判과 統一問題, 넷째, 政治社會化와 教育을 分野마다 關聯성과 더불어 研究 動向을 提示하였다.⁸⁾

8) 黃斗奘, “國民倫理教育科의 教育課程分析,” 國民倫理研究 第12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1), p.359.

Ⅱ. 理論的 背景：現代韓國社會와 國民倫理學

1. 國民倫理學의 概念

國民倫理教育의 理念은 우리 民族의 文化的·精神的 傳統에 기반을 둔 새로운 國家道義와 價値規範을 定立하고 그러한 精神基盤위에서 民族의 平和統一과 民族 中興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精神革命이며 倫理規範의 確立과 國民精神의 진작이라 하겠으며 그 中에서도 道德教育은 그 基本이 되는 것이다.⁹⁾ 왜냐하면 道德教育은 人間教育에 있어서 核心的 位置에 있다는 이유에서는 물론, 現代社會의 特徵인 人間疎外, 非人間化의 克服이라는 점에서 강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分斷狀況下에서 共產主義에 對한 批判能力과 民主主義에 對한 투철한 信念을 가진 民主市民養成을 위한 政治教育의 必要性이 대두되며 결국 國民倫理는 이 상의 道德教育과 政治教育을 包括하는 概念이 된다.¹⁰⁾ 그외에도 國民精神教育 分野가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으면서도 同一한 目標를 가지고 있는 道德과 國民倫理를 包括하는 概念으로 規定된다.¹¹⁾ 이것은 한마디로 國家와 民族을 위해서 奉仕하는 態度를 갖추기 위한 教育이라고 規定되는데 車京守는 이를 가리켜 “國家의 存續과 發展을 위하여 國民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態度, 知識, 價値觀등을 각 개인이 內面化하도록 하는 教育”이라 하였고, 國民倫理에 對해서 柳炯鎭은 “단순히 글자 풀이대로 國民이 지켜야 할 道德的이고 規範的인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國家社會의 存續과 發展을 위해서 必要한 價値觀과 世界觀을 生活을 통해서 訓練을 쌓아가게 하는 學問領域인 것”이라 하였다.

9) 柳炯鎭·姜煥國, 國民倫理教育概論 (서울; 螢雪出版社, 1982), p.40.

10) 上揭書, p. (서문 1)

11) 權赫奈, “國民精神教育의 方向,” 國民倫理研究 第 14 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2), p.173.

이처럼 國民倫理學의 範圍는 廣範하며 이를 위해서 Kant 가 「教育의 사명」에서 밝힌 바와같이 “理想的인 人間像에 對한 觀念에 의거한 보다 나은 社會의 創造”를 目的으로 行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2)

國民倫理의 概念定義를 위해서는 그 內包와 外延을 明示해야 할 것으로 본다. 13) 內包는 五大目的論으로 摘要되는데 ① 人間의 尊嚴性糾明, ② 民族史의 正統性에 立脚한 主体意識確立, ③ 民主主義理念 糾明, ④ 共產主義 批判, ⑤ 民族의 進路 規定인데 이것은 바로 人間回復, 民族回復, 民主回復의 糾明을 뜻한다. 또 그 外延이란 國民倫理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해서 適用될 關聯分野의 學問들이라고 規定할 수 있는데, 人間尊嚴性 回復에 대한 문제는 既存 倫理學이나 哲學에서, 民族 主体意識確立은 國史에서, 民主主義 問題는 政治學에서 다뤄질 수도 있지만, 지엽적인 점과 집중적이며 效果面에서 볼때 관심도에 따르는 성취 效果에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倫理란 본래 普遍性을 떠날수 없고, 人類共同의 規範이라야 하지만, 한나라의 전통과 오늘의 時代的 狀況의 特殊性에 따라 普遍성과 아울러 特殊性을 調和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한 國家社會의 바람직한 存續과 發展을 위해서 이에 必要한 價値觀과 國家觀, 그리고 世界觀을 國民에게 習得시키고 최선의 倫理的 規範들을 內面化시키며 또 生活을 통해 訓練 내지 실천하도록 하는 教育은 어느 時代 어느 國家든 실시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國家社會體制와 理念의 바람직한 維持・發展을 위한 價値觀, 世界觀, 倫理規範을 國民들에게 內面化시켜주는 教育은 現代社會의 요청이라 아니할 수 없다. 鄭明五는 國民倫理의 概念定立에 있어서 “國家社會의 歷史的 現況에 適應하여 國家體制의 가장 바람직한 維持・發展을 이룩하기 위하여 國民個個人에게 共通적으로 要求되는 國家生活의 規範的 原理” 14) 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柳炯鎭·姜煥國, 前掲書, p.20.

13) 安鍾云, “國民倫理教育課程의 改善,” 國民倫理研究 第10號(서울; 螢雪出版社, 1980), pp.174~176.

14) 鄭明五, 前掲書, p.93.

Platon 도 그의 「國家論」에서 “市民은 훌륭한 教育에 의해서 思慮깊은 사람이 된다면 모든 문제는 용이하게 통찰할 수 있다”고 하였듯이 教育의 힘, 특히 國民倫理教育의 힘은 매우 큰 것이다.

지금까지의 內容說明을 根據로 그 概念을 定立한다면 세가지 接近法이 이용되는데 첫째, 國民과 倫理의 語源과 意味로서 정의하는 語源的 方法과 둘째, 지난 12年間 실시되어 왔던 國民倫理學의 教育內容이 어떠한이었으며 또한 어떠한 效果를 얻었느냐의 實證的인 方法, 셋째, 國民倫理學이 새로운 教科目으로써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는가의 規範的 方法¹⁵⁾을 들 수 있겠다.

또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主催로 열린 세미나에서 國民倫理學의 概念定立의 結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는 “國家生活의 行動原理와 現象을 獨自的 研究對象으로 하는 學問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國民의 倫理現象을 說明하고 社會生活내지 國家生活에서 普遍的인 理想과 特殊的인 現實의 兩側面에서 要請되는 바람직한 規範體系나 價値體系를 論議하고 批判하며 探究하는 學問”¹⁶⁾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個性을 가진 民族으로서, 國民으로서, 市民으로서 우리의 過去, 現在, 未來의 歷史的 狀況과 條件에 立脚하여 國家와 民族의 發展, 繁榮의 目標達成에 必要不可缺한 國民의 道德的 成熟의 基底가 될 價値觀과 實踐倫理를 定立하는 學問이라 하였다.

이처럼 國民倫理學의 概念을 定義하는데 있어서 學者마다 약간의 異見이 存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韓國이라는 特殊狀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論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 國民倫理學의 性格

國民倫理學의 學問的 性格을 살펴본다면 우선 國民들의 바람직한 國家生活을 요

15) 李碩在, “國民倫理教育을 위한 하나의 哲學的 接近.” 國民倫理研究 第12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1), p.253.

16) 李命吉, “國民倫理教育의 意義와 內容,” 國民倫理研究 第12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1), p.338.

구하는 規範學내지 價値科學의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¹⁷⁾ 그러므로 國家社會의 體制와 理念을 바르게 維持·發展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價値觀, 態度 및 行動規範을 綜合한 分野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民族은 國家의 統一体制를 가지는데 이에 따라 民族은 國民의 性格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民族이라는 것은 歷史性이 초가 되며 國民이라고 할 때에는 國民的 自覺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倫理를 論할때 民族倫理라는 것보다는 國民倫理라고 規定하는데 이는 自覺의 體系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文化있는 곳에는 반드시 倫理가 있기 마련이며 國民倫理는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 주는게 아니라 發生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發生的 性質이 自覺의 體系로 들어갈때 國民倫理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¹⁸⁾

이를 요약한다면 國民倫理는 國民의 歷史性 또는 個性에 基礎를 두기때문에 어떠한 特定 觀念이나 思想이 아니라 그 國民의 性格을 包含한다고 할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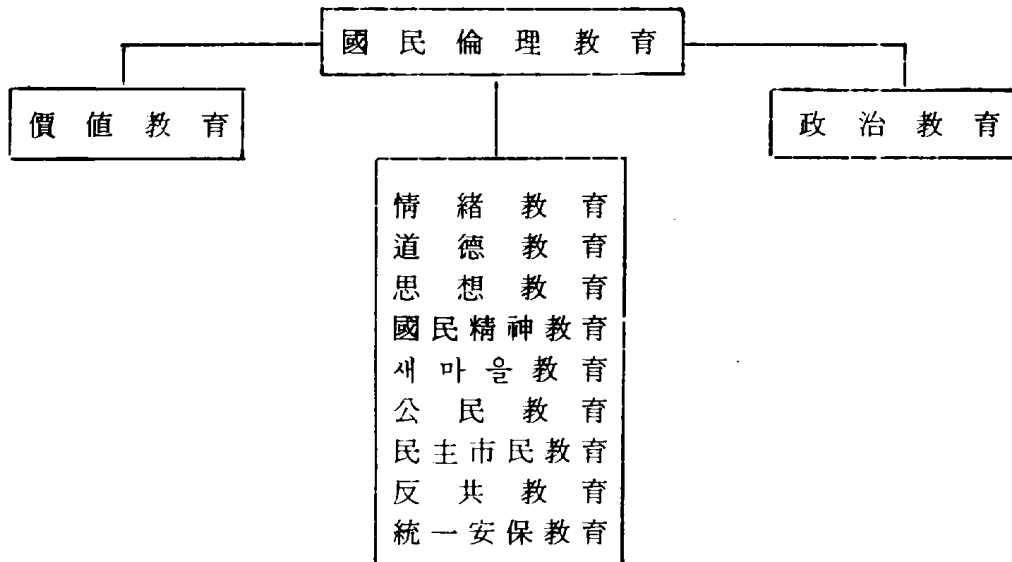
또 李奎浩는 國民倫理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國民倫理란 한 國家의 國民으로서의 倫理的인 行動規範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政治教育和 道德教育이 綜合된 것이다”라고 하여 國民倫理教育의 性格에 個人的 側面과 集團的 側面이 있다고 보고있다. 즉, 한국가의 國民으로서의 올바른 行動은 政治的 判斷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政治教育의 重要性을 들 수 있고 國家社會안에서의 바람직한 生活態度는 곧 倫理的 價値觀과 道德的 判斷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道德教育의 必要性을 들고있다. 이에 대해 朴容憲도 國民倫理學의 性格을 價値教育의 側面과 政治教育의 側面을 들고 있는데 價値教育으로서의 國民倫理란 價値觀의 概念과 機能, 그리고 그 形成과 變化의 原理이며, 政治教育의 側面에서는 國家의 維持 및 發展을 위한 國民의 總意를 形成하는 教育으로서 國民倫理란 하나의 道德性, 健全한 政治意識 및 態度등을 包含하는 바람직한 社會的 行動을 育成하고자 하

17) 鄭明五, 前揭書, p. 105.

18) 金凡文, “國民倫理特講,” 國民倫理研究 第7號 (서울; 蜚雪出版社, 1978), p.211.

19) 上揭書, p. 217.

는 學問이라고 그 性格을 規定하고있다. 이러한 兩側面을 고려하여 崔義太는 國民倫理教育을 크게 價値教育과 政治教育의 目標아래 다음과 같이 도식하고있다.²⁰⁾



그리고 國民倫理教育의 本質을 다음의 네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 全人教育的인 特性和 둘째, 國民個個人的 行動方向을 定立하며 셋째, 國民들로 하여금 健全한 共同生活을 영위해 가기위한 教育的인 特性이라 하였다.

결국, 國民倫理란 우리 民族國家의 存續과 發展을 위해 要求되는 理念과 價値体系 및 規範体系등 國家生活의 原理를 定立해가며 그 原理와 一貫된 바람직한 國民像을 形成해가는 과정에 그 教育的 目標을 두고있다고 하겠다. 國民倫理學의 綜合的이며 專門的인 性格에 對해서 林秀茂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國民倫理는 倫理教育, 價値教育, 民主市民教育, 國家觀確立教育, 公民教育, 統一教育, 反共教育, 職業觀教育등을 包含하며 또한 그 領域은 哲學, 倫理學, 政治學, 經濟學, 社會學, 歷史, 心理學, 教育學등 다양하다.”²¹⁾ 이 모든 學問의 窮極的인 關心중의 중요한 內容은 우리 民族文化의 계승발전이고 더욱 찬란한 文化의 創造를 통해

20) 崔義太, “現代 國民倫理教育의 本質과 그 機能,” 國民倫理研究 第 13 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2), pp.203~205.

21) 林秀茂, “國內大學 國民倫理 커리큘럼研究,” 國民倫理研究 第 14 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2), p.13.

서 全人類에게 功獻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國民倫理는 人文·社會分野의 綜合性和 統合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國民倫理는 이미 專攻科目으로 大學 또는 大學院에서 설치 운영되는바 專門性を 의미하고 있으며 다른분야의 專門性和 더불어 學問的인 갈등을 자아내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면에서는 각 專攻分野에서 倫理教育의 擴大가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반면에 國民倫理學의 內容이 他學問과 密接하더라도 既存學問이 그 性格에 있어서 國民倫理學이라는 特殊分野를 責任있게 代身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²²⁾

그러므로 國民倫理學은 人際學問과의 調和를 통하여 獨自的인 學問的 體系를 이뤄야 하는 倍價的 努力이 必要한 것이다. 朴容憲도 國民倫理學을 人間과 社會를 研究對象으로 하는 社會科學의 한 領域으로 간주하고 있다.²³⁾

그리고 國民倫理教育의 具體的 內容을 參考하여 그 性格을 把握해 본다면²⁴⁾ 첫째, 人間學的인 倫理學으로써 社會原理와 個人價値를 통해 共同体意識을 함양하는 價値觀의 性格이어야 하며 둘째, 民主主義 國家의 原理와 理念으로부터 國際政治의 體系와 傾向을 인식시킬수 있어야 한다. 셋째, 國家의 組織과 機關들에 대한 基本的인 知識習得으로 國家發展에의 參與意識을 고취 시켜줘야 한다. 넷째, 社會 및 經濟分野의 知識으로 共同体意識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보고있으며 끝으로 現代社會의 精神的·經濟的·政治的 문제에 관한 教育이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前述한 바와같이 朴容憲은 倫理分野를 社會科學의 領域으로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個人的 社會的 行動의 제 1 要因을 個人的 人性體制, 제 2 要因은 社會體制, 제 3 要因은 文化體制로 보았는데, 이들은 統合的으로 綜合하여 個人的 社會的 行動을 폭넓게 이해할 目的으로 國民倫理學의 背景學問으로 接近시키고 있다. 또 國民倫理的 社會行爲의 學問的 背景으로 James A. Banks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22) 金炯孝, “國民倫理教育의 強化理由,” 國民倫理研究 第 10 號(서울; 螢雪出版社, 1980), p.126.

23) 朴容憲, “國民倫理學의 性格,” 韓國精神文化研究編, 國民倫理學(서울; 博英社, 1982), p.64

24) 李奎浩, “國民倫理教育의 內容,” 國民倫理研究 第 1 號(서울; 共信文化社, 1973)p.24.

있다. 25) 즉 社會的行爲의 決定은 社會科學的인 知識과 바람직한 價値判斷의 二元的 바탕에 두고 있는데 社會行爲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社會科學的 各種知識과 이의 價値化 내지 態度化과정의 조화로운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價値란 人間이 對象에 부여하는 意味行爲의 結果 내지 그 意味內容이 바람직스러운것, 옳고 그른것, 좋고 나쁜것을 規定해 주는것을 말하며 價値觀이란 그와 같은 가치가 부여된 바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람들이 지니는 觀念인 것이다. 그리고 價値志向 또는 價値態度는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된 對象을 向해 行動하려는 選好의 性向을 이룬다는 것이다. 26)

여기서 國民倫理學의 目標 내지 그 效果에 對해서 韓昇助의 주장을 살펴본다면 첫째, 韓國國民의 새로운 民族的 主体性(identity)의 確立, 둘째, 愛國愛族하는 國民性格의 形成, 셋째, 東亞細亞의 精神·文化大國을 建設함으로써 統一된 民主福祉國家를 이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의 韓國民族의 像은 韓國民族의 文化傳統을 깊이 理解하여 그속에 確固하게 뿌리박힌 民族主体意識과 未來指向的인 立場에서 人間尊嚴性和 自由·平等·博愛의 普遍的 價値를 韓國이라는 特殊狀況에서 最大限으로 具現할 수 있는 智·仁·勇을 兼備한 道德的인 國民性格을 形成함으로써 確立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

이처럼 國民倫理의 性格에 對한 見解는 사람마다 같지는 않은데, 이는 國民倫理教育의 必要性은 강조되면서도 그 性格에 對한 뚜렷하고 一貫性있는 合意的 定立은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시련속에서도 國民倫理教育 研究會가 10여년간 不斷히 研究·努力해온 결과 國民倫理學會로 改稱이 되면서 定立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앞으로 發展的 體系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

25) James A. Banks, Teaching Strategy for the Social Studies (Massachusetts, Addison-westey publishing Co., 1973), p.29.

26) 金環東, 人間主義社會學(서울; 민음社, 1978), p 137 .

27) 韓昇助, “國民倫理教育의 內實化 方案,” 國民倫理研究 第 12 號(서울; 螢雪出版社, 1981), p.328.

28) 黃斗奐, “國民倫理教育科의 教育課程分析,” 國民倫理研究 第 12 號(서울; 螢雪出版社, 1981), p.352.

이처럼 國民倫理學에 對한 見解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國民倫理學이 國民들의 바람직한 國家生活를 規範하는 規範學 내지 價値科學의 性格을 띠며,²⁹⁾ 國家社會의 体制과 理念을 바르게 維持·發展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價値觀, 態度 및 行動(行爲) 規範을 綜合하는 學問的 分野라는 基本的인 性格이나 脈絡은 同一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3. 國民倫理學의 必要性

國民倫理學의 體系化를 위한 시도로 우선 그 必要性을 들지 않을 수 없다. 一般 社會科學들의 教育的 內容을 보면 단편적이고 價値中立的인 知識의 전달에 그치기 쉬우며 이러한 分野에서는 愛國的이며 民主主義的인 使命感과 責任感을 기대하기 어렵다.³⁰⁾ 그러므로 그러한 教育을 위한 訓練을 짧은 기간내에 실시할 수 있는 科目은 오로지 國民윤리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政治發展이란 民族的·國家的인 課題를 더 넓은 國民的인 合意와 더 굳은 國民的인 統合을 통해서 이룩된다고 하겠는데 이는 바로 國民倫理教育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國民倫理學은 國民의 精神文化를 創造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國民精神文化는 國家社會안에서 生活하는 國民들에게 實存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보람을 認識할 수 있도록 綜合的 體系를 創造하는 方向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³¹⁾

이처럼 國民精神文化의 開發은 國民倫理學의 創造的 課題이며 民族國家의 主体性 確立을 위해서도 必要不可結한 分野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研究調查結果를³²⁾ 본다면 國民倫理의 肯定的인 評價가 全體的으로 67%였으며 現實에 비추어 國民倫理教育이 「꼭」 또는 「어느정도」 必要하다고 지적한 學生이 全體的으로 85%에 이른것으로 보아 國民倫理學의 必要性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

29) 鄭明五, 前揭書, p. 105.

30) 李奎浩, 國民倫理教育의 理論과 實際 (서울; 文佑社, 1982), p.29.

31) 上揭書, p.119.

32) 韓荃淑·金泰吉·朴元澤·朴俊圭·崔昌圭·李楠永, “國民倫理教育方法에 관한 實驗的研究,” 國民倫理研究 第4號(서울; 三和印刷社, 1975), p.180.

겠다. 그리고 靑少年問題와 關聯시켜 그 必要性을 검토해 본다면 이를 證明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즉, 靑少年의 價値觀과 倫理觀의 定立은 天性的인 것이 아니라 既存文化, 社會속에서 教育되고 體得되며 經驗되는 과정을 통해서 形成되기 때문이다.³³⁾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國民倫理가 강조되고 또한 靑少年問題가 주요 관심사로 전개된다고 하겠다. 즉 지금까지의 經濟發展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최소한의 물질적기반은 形成되었으나 거기에 相應하는 精神的 價値와 共同的 倫理는 거의 全無한 狀態이므로 이를 위한 努力으로 國民倫理教育은 必要한 것이라 본다.

이와 더불어 産業社會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對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産業社會의 出現으로 國民倫理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실로 막중하다. 왜냐하면 産業社會로 접어들면서 人間의 生活 및 行動에 큰 變化를 초래하였고 해결해야 할 많은 教育學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첫째로 社會解體가 심화되어 아동 및 靑少年에 對한 統制力과 教育力이 약화되었으며 靑少年들이 고도의 都市化現象으로 인해 大衆社會文化에 휩쓸리게 되어 社會教育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³⁴⁾

教育的으로 말해서 精神文化的 啓發은 産業社會의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 및 현상을 시정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 道德, 價値意識등에 關聯된 넓은 의미의 精神文化啓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研究하는 것은 産業社會를 건전한 方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國民倫理는 必要한 것이라 본다.³⁵⁾

또한 國民倫理는 國基를 創業하는 理念구축에 있어서 社會를 건전한 정신으로 計劃化하는데도 必要한 것으로 본다. 첫째, 國民倫理는 既存學問의 論理·教授體系보다 자유스럽게 社會를 理性的으로 計劃化하고 國民精神을 教養化하는데 學問적으로 기여해야하며 또 既存의 學問을 韓國化로 수렴토록 하며 또 다른 學問은 國民倫理에게 普遍化로의 擴張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둘째로 國民倫理

33) 金大煥, “靑少年의 價値觀과 倫理,” 國民倫理研究 第6號(서울; 星文印刷株, 1977), pp.21 ~ 22.

34) 李先煥, “産業社會와 精神文化的 啓發(教育學的 側面에서),” 國民倫理研 第7號(서울; 螢雪出版社, 1978), p.73.

35) 金炯孝, 前掲書, p.119.

學은 보다 獨自的이고 자유로운 方法과 體系에 의하여 國民文化의 創造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必要하다고 본다.

國民倫理는 目的的인 行動이며 實踐的인 行爲의 총체이므로 國家生活이 形成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國民倫理問題가 대두된다고 보아야 한다. 國民倫理學은 그 性格에서도 밝힌바와같이 價値教育的이며 政治教育的인 機能을 한다고 하겠다.³⁶⁾

여기서 國民倫理學의 機能을 밝힌후에 왜 必要한가를 歸納的으로 증명할까 한다. 國民倫理學은 健全한 道德性, 健全한 態度, 健全한 政治意識등을 包含하는 바람직한 國家社會的 行動을 育成하는 機能을 한다. 따라서 健全한 價値觀形成이 그 機能에 包含되며 價値教育이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가 된다고 하겠다.

또 政治教育的 機能이란 体制의 正當性에 對한 國民의 支技基盤을 견고히 하는 機能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國民倫理教育은 價値教育的 및 政治教育的 機能의 相互補完的인 關係를 가지고 有機的인 機能을 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機能을 통하여 國民倫理學의 目標을 達成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必要性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Aristoteles 도 “어떤 憲法制度의 保全을 위한 最善의 方法은 그나라의 政治形態에 맞게 國民을 教育하는 것이다. 모든 市民이 支技하는 政治体制라 할지라도 젊은 世代가 그 憲法의 精神으로 教育받고 習慣化되지 않는다면 아무 所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오늘날의 政治教育이나 政治社會化에 적합한 國民倫理學의 必要性을 역설하였다고 보여진다.

朴容憲도 國民倫理의 強調理由를 다음의 세가지 側面에서 보고 있다.

첫째, 南北間의 理念的 對決과 正統性 對決이 치열해지며 統一問題가 長期化되면서 이에대한 自由的이고 平和的인 해결이 절박하게 되었다는 점과, 둘째, 傳統的 社會關係秩序와 價値觀이 약화되고, 政治·經濟·社會關係의 秩序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 意味를 把握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國民의 一体感과 正體感을 바탕으로 하는 社會統合의 必要性 때문이며, 셋째, 學問과 教育이 專門領域別로 分化되고 있으며 學問의 價値中立性이 強調됨으로써 國民倫理에 關한 研究와 教育이 별도로 요구되

36) 崔義太, 前掲書, p.205.

있다는 점이다.³⁷⁾

이상의 강조이유를 바탕으로 國民倫理學의 必要性 내지 중요성을 요약한다면, 첫째, 다른 學問分野에서는 國民倫理의 精神과 內容을 体系的으로 다룰 수 없으며, 이를 責任있게 수행하고 統合的으로 實施하기 위해서는 特殊한 學問領域이 必要하며,

둘째, 일반 社會科學分野는 단편적이고 價値中立的인 知識傳達에 그치기 쉬운 반면, 愛國的인 民主國民의 教育을 위한 使命感과 能力을 배양하기 위해서 國民倫理學은 必要한 것이며,

셋째, 社會的·國家的 必要와 要求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하여 訓練하고 教育함으로써 國家建設에 有益한 人材를 양성할 수 있으며,

네째, 南北韓의 特殊狀況下에서 北의 共產集團의 도전과 對立에 對應하기 위해서 國民的 思想무장을 위해서도 國民倫理學은 絶실하며,

다섯째, 民主主義의 發展을 위해서도 國民倫理學의 確立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결국 國民倫理學은 前述한 內容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絶실히 要求되는 分野임을 알 수 있다.

4 . 國民倫理學의 方向

지금까지 國民倫理의 概念 및 性格, 그 必要性까지 살펴보았다. 좀더 나아가 그 方向은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國民倫理란 同一한 國家에 屬하는 國民으로서 지켜야 할 共同的인 人間生活의 道理를 말한다. 이처럼 國民倫理란 個人道德에서 進一步하여 國民的 共同生活의 正義實現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特殊한 各 民族이 存續하는 한 그런 民族들의 自主的인 主權과 傳統的인 文化가 소멸될 리는 없다. 이런점에서 特殊한 民族들의 倫理가 存在하는 한 우리의 國民倫理도 계속적으로 要求될 것이다. 곧 各 國家, 各 民族의 特殊性的 維持는 特殊性없는 人類一般이 추구하는 普遍性보다는 바람직

37) 朴容憲, 前揭書, p.55.

하다고 하겠다.³⁸⁾

이런점에서 우리의 國民倫理가 模索해야 할 方向은 어떠해야 하며 더 나아가 現代 韓國人을 위하여 바람직한 價値觀과 基本方向이 무엇인지 살펴 본다면,

첫째, 우리의 새로운 價値體系는 人間 및 精神的 價値가 優位를 차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現代의 根本問題인 人間疎外를 극복하고 人間本然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강조되어야 하며 그러한 方向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合理的 精神과 公正心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判斷하고 行動하는 態度를 形成해야 한다. 즉 社會正義가 實現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權利와 義務를 公正・尊重하며 모든 일을 사리에 따라 처리하는 態度여야 한다.

셋째, 個人的 幸福과 共同體의 繁榮을 調和롭게 兩立시킬 수 있는 價値體系의 樹立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³⁹⁾

이러한 價値觀의 基本方向에 따라 우리가 目標로 하는 國民倫理의 方向을 模索해야 할 것이다.

國民倫理教育의 目的에 對한 基本性格은 普遍性和 特殊性的 調和가 目標設定에 고려되고 獨自性은 自我實現的인 강좌로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 方向에 대한 문제점을 본다면, ⁴⁰⁾

- I) 普遍性和 特殊性的 調和問題
- II) 政治次元이 아닌 國家次元의 地位確保
- III) 人間教育(人生觀, 歷史觀, 社會觀, 國家觀의 確立)과 國民倫理
- IV) 祖國分析和 統一教育問題
- V) 學問的 獨自性的 確立
- VI) 國家發展과 知識人의 自己反省問題
- VII) 社會的 不條理와 倫理教育

이상 나열한 문제에 對해서 앞으로 많은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8) 崔載善, 人間主義倫理學 (서울; 日新社, 1978), p.255.

39) 金泰吉, “現代社會와 價値觀의 問題,” 國民倫理研究 第5號 (서울; 三和印刷社, 1976), pp.17~19.

40) 李昶雨, “國民倫理教育目的의 定立,” 國民倫理研究 第10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0), pp.163~168.

Ⅲ. 調査分析의 結果；既存國民倫理研究의 現況

1. 主題別 研究의 內容

緒論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國民倫理를 大學에서 教養必須科目으로 採擇・實施된 지도 벌써 12年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이에 對한 논란과 批判의 소리가 드세었던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國民倫理教育研究會를 中心으로 1973年 「國民倫理研究」 創刊號를 기점으로 現在까지 계속 발간하면서 國民倫理學의 큰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이 研究의 對象으로 「國民倫理研究」誌를 擇하였으며, 이와 함께 大學教材의 目次分析도 병행하였다.

이 研究의 焦點이 研究主題의 흐름과 그 主題別 研究의 內容에 관한 것이므로 우선 分野別 게재편수로 規定하였음을 밝혀둔다. 研究論文의 主題分類上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재論文 테마의 性格으로 미루어 分類하였으며 筆者의 個人的 觀點도 內包되었음을 인정한다. 특히 國民倫理要目的 5個項을 標本으로 좀더 세분하여 區分하였다. 그리고 研究動向의 흐름을 把握하기 위하여 1973年 1號(創刊號)를 始作으로 1983年 15號까지 조사하여, 前半部(1號~8號) 8卷과 後半部(9號~15號) 7卷으로 各各 묶어서 조사하였다. 우연하게도 前後半으로 나누고 보니 前半部는 70年代가 되었고 또 後半部는 80年代가 되었기에 簡略하게 70年代와 80年代로 時代區分을 하였다. 여기서의 문제점이라면 초창기의 1974年度만 年2回 出刊되었을뿐, 1979年度까지는 年1回에 불과하였으며 그후 1980年度부터는 年2回 週期的으로 出刊되었음을 考慮할때 약간의 오차가 內在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70年代에는 7年間 8卷을 出刊하였음에 비해 80年代에는 겨우 4年間に 불과한데도 7卷을 出刊하였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國內 學術研究誌의 性格上 劃一的인 時代區分을 할수 있는 有一한 研

究對象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領域區分은 5個項을 근간하여 必要한 項目을 몇개 더 추가하여 9個의 領域으로 나뉘었다. 즉, 道德, 倫理學, 韓國思想, 民主主義, 北韓 및 統一問題, 共產主義批判(이데올로기批判), 政治社會化, 國民倫理 및 國民精神教育, 기타를 나타낸다.

이상을 통하여 時代에 따른 研究領域別 動向과 역으로 領域別 時代의 추세를 把握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國民倫理研究」誌에 게재된 主題分類는 다음의 <表1>에서 보여주고 있다.

<表1> 「國民倫理研究」誌에 게재된 主題分類

領 域 年度(號)	道德	倫理學	韓國 思想	民主 主義	共產 主義 批判	北韓 統一 問題	政 治 社 會 化	國民倫 理教育	其他	計 (%)
1973年(1號)	1	1	4	4		1	1	6	2	20(0.7)
1974年(2號)	3	2	4	3			2	2	2	18(6.9)
(3號)	2				10	3		1	1	17(6.6)
1975年(4號)			14	1				2		17(6.6)
1976年(5號)	6	2					5	7		21(8.1)
1977年(6號)	4	1	5	2			1	2		15(5.8)
1978年(7號)		1	3			1	3	8	3	19(7.3)
1979年(8號)	1	1	6	1			1	5	3	18(6.9)
1980年(9號)	1	1	2			1	7	1	5	18(6.9)
(10號)	5		2				3	10	2	22(8.5)
1981年(11號)	1	1			2	3	1	8		16(6.2)
(12號)	1		1		1	2	5	6		16(6.2)
1982年(13號)			2	1	3			8		14(5.4)
(14號)			2	1	1	1		8		13(5.0)
1983年(15號)					1	1	3	8	1	15(5.8)
計 (%)	25 (9.7)	11 (4.2)	45 (17.4)	13 (5.0)	18 (6.9)	14 (5.4)	32 (12.4)	82 (32)	19 (7.3)	259

※ 숫자는 領域別 및 時代에 따른 게재논문편수임.

<表1>에 나타난 結果를 보면 領域別 研究傾向이 時代에 따라 약간씩 變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共產主義批判領域은 1974年(第3號)에 10편

이나 게재했지만 그후 전혀 研究가 없었다가 1981 年에 접어들어서야 2~3 편씩 發表되고 있으며 道德 및 倫理學分野도 1970 年度까지는 계속적인 研究를 보이다가 1980 年에 접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韓國思想 領域에서도 1975 年 4 號에는 무려 14 편이나 게재되었으나 조금씩 감소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民主主義에 對한 研究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把握된다.

반면에 北韓 및 統一에 關한 研究는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特히 韓國의 現況과 아주 密接한 國民倫理教育의 內容 및 方法등에 關한 研究는 다른 領域과 比較할 수 없을 만큼 특출한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바로 國民倫理學의 體系化를 위한 基礎作業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最近들어 부쩍 많은 研究가 發表되고 있는데 좀더 깊이있는 內容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너무 劃一的이며 단편적인 知識위주의 內容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論理的이고 根本的인 문제해결방안이 模索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등한시 하였던 國民精神教育分野에 對한 研究가 진척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바람직한 國民意識의 高揚으로까지 擴散시킬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政治社會化의 領域도 1970 年代 후반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研究되고 있는데 이 分野 역시 계속적인 研究가 必要한 것으로 본다.

領域別 研究論文의 편수를 살펴보면 1 號에서 15 號까지 총 259 편의 게재논문 중 國民倫理(國民精神)教育分野가 86 편(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韓國思想으로 45 편(17%)이고, 政治社會化 分野가 32 편(12%), 道德 및 倫理 分野가 各各 25 편(10%), 11 편(4%)였다. 共產主義批判分野는 18 편(7%)이고 北韓 및 統一問題는 14 편(5%), 民主主義分野가 13 편(5%)으로 그 순위를 살필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領域別로 골고루 研究가 되지 못하고 어떤 時代的 要請에 따라 特定分野에만 研究를 기울인다는 것은 學問的 體系化에 큰 障礙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各 領域別로 均衡있게 調和・發展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表2〉 國民倫理研究誌의 게재 論文中 國民倫理學(教育)과 關聯된 主題別 分類

主 題	1號	2號	3號	4號	5號	6號	7號	8號	9號	10號	11號	12號	13號	14號	15號	計
國民倫理學의 概念·本質					○							○	○			3
國民倫理學의 內容	○			○	○							○			○	4
國民倫理學의 方法	○			○						○						4
國民倫理教育의 評價方法										○						1
國民倫理學의 役割											○					1
" 目的										○						1
國民倫理教育과 價値觀			○		○	○			○							4
國民倫理教育의 教育效果					○											1
" 준거	○	○														2
國民倫理學과 國民性								○								1
" 人間理解															○	1
國民倫理學의 接近法												○				1
" 必要性										○						1
" 方向												○		○		2
" 問題點	○															2
" 教育課程										○				○		2
" 片考	○															1
" 特講								○								1
" 診斷															○	1
" 課題			○		○					○					○	4
" 展望										○						1
" 進路												○				1
計	5	1	2	2	6	1	1	1	1	7	1	4	2	2	4	40

〈表2〉는 國民倫理學에 관한 研究主題를 出刊順序別로 細分하여 살펴본 것이다. 즉 〈表1〉中 國民倫理教育領域에 해당하는 게재논문들에서 國民倫理와 아주 密接한 論文을 가려낸 것이다. 國民倫理學의 學的 定立 내지 体系化를 위해서는 지금껏 研究해 왔던 主題를 기반으로 좀더 一貫性있게 分析·檢討함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國民倫理學과 關聯된 主題는 1號에서 15號까지 研究誌 目次의 性質에 따라

총 40 편을 選擇하여 分類하였지만 以外에도 分析의 對象이 될수 있는 主題를 추출하여 그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必要하리라 본다.

이 研究에서는 國民倫理學과 密接하게 관계되는 主題만을 對象으로 하여 學問의 体系化를 위한 시도로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研究의 分析對象이 1973 年부터 1983 年(10 여년간)까지의 論文에 한정되었기에 이러한 結果만으로 國民倫理學의 흐름을 把握했다고 속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大學教材의 分析이 추가될때에 비로서 体系的인 學問의 흐름을 把握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教材分析에서 그 방대한 內容을 分析한다는 것이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단지 教材 目次의 章·節別로 나타난 主題를 要目別로 分類하는데서 그칠수 밖에 없었다. 分析對象이 된 教材는 現행 國內大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7 卷의 教材에 한한다.

<表 3 >은 大學 國民倫理 教材의 目次에 나타난 章·節別 要目を 分類한 것이며 分析對象이 된 教材는 國民倫理學會에서 發刊한 「國民倫理(I·II)」를 비롯하여 7 卷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다.

- I ; 「國民倫理(I·II)」, 國民倫理學會編, 螢雪出版社, 1982.
- II ; 「國民과 倫理」, 金亨錫·趙宇鉉·裴宗鎬 共著, 博英社, 1982.
- III ; 「새 國民倫理」, 새精神教育研究委員會編, 博英社, 1981.
- IV ; 「新國民倫理」, 國民倫理教材編纂會編, 青文社, 1983.
- V ; 「新國民倫理 I·II」, 國民倫理編輯委員會編, 大旺社, 1981.
- VI ; 「國民倫理」, 金泰吉·沈在龍·李容弼 共著, 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 VII ; 「現代社會와 國民倫理」, 金仁濟, 日新社, 1982.

이상의 教材 目次 分析도 時代區分으로 해야 하겠지만 出刊年度가 最近의 것이어서 단지 目次의 比較分析에 그칠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教材編輯上 미비한 部分에 對한 補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表 3 >의 要目は 1970 年度 「大學倫理教育準備委員會」에서 發表한 國民倫理 講議要目を 根據한 것인데 그 당시의 이 講議要目は 現在의 많은 教科書가 出刊되는데 그 基礎를 이룬것이라는 점에서 採擇하여 보았다. 이 要目に 의하면 5 個의

〈表3〉 國民倫理教材의 章·節別 要目分類

項目 教科書	Ⅰ	Ⅱ	Ⅲ
國民倫理의 基本	1) 國民倫理란 무엇인가? · 國民倫理의 概念 · 外國의 國民倫理 2) 現代社會와 倫理 · 人間과 國家 · 現代産業社會와 人間 · 現代國家와 國民倫理 3) 현대사조와 倫理	1) 社會와 倫理 · 人間의 問題 · 우리가 사는社會 · 倫理와 價値觀	
歷史와 民族	1) 韓國의 傳統과 思想 · 韓國精神 · 佛敎와 儒敎 · 韓國人의 價値觀 2) 새歷史 創造 · 民族主体性의 確立 · 民族史의 創造	1) 韓國文化와 傳統思想 · 韓民族과 敎育思想 · 韓國佛敎의 本質 · 實學과 創意性 · 東學과 主体性	
民主主義의 確立	1) 民主主義의 理念과 實際 · 民主主義의 本質 · 民主主義의 새로운 思潮 2) 韓國民主主義의 思想과 現實	1) 民主主義의 確立 · 民主主義의 基本理念 · 民族主義와 民主主義 · 個人主義와 民主主義 · 自由主義와 權威主義 · 民主主義와 韓國	1) 民主主義와 理念과 現實 · 民主主義 思想의 成立과 發展 · 民主主義의 原理 · 民主主義의 現實 · 民主主義 發達의 여건

IV	V	VI	VII
1) 人間의 存在 · 人間의 本性問題 · 나(自己)의 存在 · 尊嚴한 存在 · 社會的 存在 2) 人間과 倫理 · 倫理의 本質 · 倫理學의 定義 · 倫理學의 動搖 3) 現代社會와 倫理	1) 人間과 現代倫理 · 人間의 存在 · 人間과 倫理 2) 國家발전과 國民 倫理 · 現代社會와 倫理 · 現代韓國과 國民 倫理	1) 人間과 倫理 · 人間의 本性 · 倫理란 무엇인가 · 倫理學의 根本 · 現代韓國과 倫理 問題	1) 國家發展과 倫理 · 새 精神文化와 倫理意識 · 倫理의 本質 · 倫理學과 倫理問 題의 變遷 2) 社會와 倫理 ·
1) 現代韓國과 國民 倫理 2) 韓國傳統文化의 歷史와 思想 · 韓國傳統文化의 特性 · 韓國思想의 전개 · 韓國思想의 계승 · 民族文化의 계승	1) 韓國傳統文化의 歷史와 思想 · 韓國傳統文化의 特性 · 韓國思想의 전개 · 韓國思想의 계승	1) 傳統的 韓國思想 의 이해 · 韓國思想의 定立 · 韓國의 민속과 종교 · 불교와 한국적 전개 · 유교와 // 2) 近代的 韓國思想 의 대두 · 회고와 展望	1) 韓國의 傳統思想 과 倫理 · 韓民族의 傳統과 特色 · 韓國思想의 源流 · 韓國의 선비精神 · 實學派의 現實 改革論 2) 國家觀의 確立과 主体思想 · 傳統의 계승과 국난극복
1) 自由民主主義의 原理 · 民主主義의 定義 · // 根源 · 民主思想의 發展 · 民主主義의 理念 · // 基本問題 · 현대 민주주의 문제 2) 民主主義와 民族主義 3) 韓國民主主義의 基本問題	1) 現代民主思想과 韓國民主主義 · 自由民主主義의 原理 · 民主主義와 民族 主義 · 韓國民主主義와 基本問題	1) 民主主義의 理念 理念과 原則 2) // 前提條件 3) //에서의 國家와 個人 4) 民主政治의 구조와 과정 5) // 전개 과정 6) // 類型 7) 民主的 生活樣式과 秩序	1) 民主主義 理念의 發展 2) 民主政治制度의 成立 3) 民主主義의 제가치 4) 韓國民主政治論 5) 韓國民主主義의 傳統과 現代性 6) // 現實과 發展方向 7) // 의 理念 8) // 活路

教科書 要目	I	II	III
共産主義의 批判	1) 共産主義의 理論과 실상 · 共産主義 哲學批判 · " 經濟理論과 體制 · " 政治理論과 體制 · " 戰略戰術 · " 변천과분열 2) 北韓共産主義의 特徵과 批判 · 北韓공산정권의 樹立 · 北韓통치이데올로기와 体系的 特徵 · 北韓社會의 特徵 · 北韓의 武力統一 政策과 對南戰略	1) 共産主義 批判 ·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초 · 공산주의 비판 · 앞으로의 展望과 그 극복	1) 공산주의 理論과 현실비판 · 민주주의의 도전 · 공산주의 理論과 그 비판 · 공산주의 현실비판 · 北韓共産主義의 成立
民族의 進路	1) 經濟發展과 倫理 2) 民族의 生存과 統一의 길 · 關係와 한반도 통일 · 한반도의 特殊 狀況 · 南北韓의 平和政策 · " 통일政策 · 生活과 統一의 길	1) 民族의 進路와 理想 · 民族中興과 近代化 과정 · 우리의 理想과 進路	1) 祖國 先進化 2) 勝共平和統一

IV	V	VI	VII
<p>1) 공산주의 理論과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의 사상과 비결 · 국제공산세계의 현실과 最近動向 · 北韓共產主義 비판 · 北韓 實情 <p>2) 공산주의 이데올로기</p> <p>3) 全體主義 //</p> <p>4) 北韓共產집단의 이데올로기</p> <p>5) 현대의 이데올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네오마르크스주의 · 서구사회민주주의 · 유로코뮤니즘 	<p>1) 공산주의 理論과 비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의 사상과 비결 · 국제공산세계의 현실과 最近動向 · 北韓共產主義 비판 · 北韓 實情 <p>2) 공산주의 이데올로기</p> <p>3) 全體主義</p> <p>4) 北韓共產집단의 이데올로기</p> <p>5) 현대의 이데올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네오마르크스주의 · 서구사회 민주주의 · 유로코뮤니즘 	<p>1) 공산주의와 北韓體制 批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의 理論的 기초 · 공산주의의 諸類型 · // 實際 · 공산주의 革命戰略 戰術 · 北韓體制的 特徵 · 北韓社會 實態 · 北韓社會의 展望 	<p>1) 공산주의의 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주의의 理論的 背景 · 공산주의 理論 · 공산당의 戰略戰術과 對南戰略 <p>2) 現代全體主義의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全體主義의 概念 定義 · 全體主義의 發生的 狀況 · 공산주의와 파시즘
<p>1) 民族의 進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國民倫理의 定立과 社會正義 · 正義社會具現과 사회정화운동 · 國民意識의 改革과 強化 	<p>1) 民族의 進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國民倫理의 定立과 社會正義 · 正義社會具現과 사회정화운동 · 國民意識의 改革과 強化 		<p>1) 새歷史의 創造와 民族의 進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歷史創造의 推進力 · // 方向 · 民族主体意識 方向 · 大韓民國의 政統상 確信 · 福祉社會建設에의 參與 · 祖國統一과 平和政策

項目을 提示하고 있는데, 41)

첫째, 國民倫理의 基本

(人間存在, 人間의 社會性, 倫理의 本質, 個人과 國家)

둘째, 歷史와 民族

(民族史의 精華, 世界史와 韓國, 民族中興의 課題, 傳統과 創造)

셋째, 民主主義의 確立

(民主主義와 理念과 그 展開, 民主主義의 制度와 實際, 自由와 統制, 民主主義의 土着化)

넷째, 共產主義의 排戰

(共產主義의 戰略과 戰術, 北韓의 實情)

다섯째, 民族의 進路

(世界史의 方向과 民族의 主体性, 近代化作業, 勝共統一의 길, 祖國의 未來像)이다.

이상의 5가지 要目으로 區分하여 目次分析을 시도해 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여기서 나타난 結果를 綜合해 보면 7卷의 教材가 거의 비슷한 目次를 이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教材는 어떠한 特定 項目에 편중된 현상을 볼 수가 있다. 반면에 어떤 教材는 그 特殊性때문에 (Ⅲ의 教材는 現在 陸軍士官學校에서 使用되고 있음) 다른 項目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간을 두고 檢討해 봐야 할 것이다.

〈表 4〉는 〈表 2〉의 研究誌分析에 의한 主題分類과 마찬가지로 教材의 章·節別 分類에 따른 主題別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도 〈表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特定 몇몇 教材는 目次構成上 미비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I의 教材는 國民倫理學會編으로 「現代社會와 倫理」라는 教材名에서 1982년에 수정·補完된 것으로 現在 총 104個 大學中 60個 大學에서 教材로 採擇하고

41) 朴俊圭·金泰吉·朴容憲·高永復, 國民倫理教育科의 教育課程 體系化를 위한 基礎研究, p. 6.

〈表 4〉 國民倫理教材의 章·節에 따른 主題別 分類

主 題	教科書	I	II	III	IV	V	VI	VII
國民倫理의 概念		○						
現代社會와 倫理		○	○		○	○		○
人間과 價値(倫理)			○		○	○	○	○
倫理學의 定義(本質)					○		○	○
現代韓國과 國民倫理		○				○	○	
傳統과 思想			○		○	○	○	○
佛·儒·實學의 思想		○	○				○	
民族文化의 계승					○	○		○
새 歷史 創造		○						
韓國 思想		○					○	
民主主義의 概念		○	○	○	○			○
韓國民主主義			○	○		○		○
民主主義의 原理						○	○	
共產主義 理論		○	○	○	○	○		○
北韓共產主義 批判					○	○	○	
共產主義의 戰略戰術		○					○	○
平和 統一		○		○	○	○		○
民族의 進路			○		○	○		
民族主体意識								○

있는 教材이다. 이 教材는 要目에 따른 目次構成이 대체적으로 무난한 편이며 特히 學會에서 發刊되는 教材인 만큼 그 內容에 充實을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 教材를 통해 大學 國民倫理教育의 內實化와 深化方案을 模索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I의 教材도 대체로 무난한 편이지만 國民倫理의 基本項目에서 다소 부족한 감이 있으며 特히 共產主義의 挑戰項目에서 거의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共產主義의 理論과 北韓의 실상에 對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데올로기 批判이라는 項目을 추가시켰으면 한다. 南北韓의 對決狀況에서 對應할 수 있

는 유일한 方法은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을 통한 思想的 무장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Ⅲ의 教材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陸軍士官學校의 教材로 그 特殊性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教材이든지 그 基本的 들은 維持할 수 있어야 하는데 國民倫理의 基本項目과 歷史와 民族이라는 項目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Ⅳ와 Ⅴ의 教材는 國民倫理教材編纂會와 國民倫理編輯委員會에서 出刊한 教材이므로 거의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 教材들도 Ⅰ의 教材와 마찬가지로 다소 부족한 감은 있지만 대체로 充實한 內容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Ⅵ의 教材는 韓國放送通信大學의 教養教材로 使用되고 있는 것으로 5個의 要目中 4個項目은 대체로 무난하지만 民族의 進路項目은 언급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Ⅶ의 教材는 各 項目에 充實을 기하려는 努力이 보이지만 일면 韓國 思想項目에 다소 편중된 감이 든다. 특히 이데올로기批判을 위한 共產主義理論에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듯이 教材마다 약간의 미비 내지는 補完되어야 할 部分을 지적하면서 比較해 보았다.

이외에도 現在 우리나라 大學에서 教材로 使用되는 것을 살펴본다면,

- 1) 「國民倫理」, 大學倫理教材編纂委編,
- 2) 「大學國民倫理」, 창문각,
- 3) 「韓國倫理와 國民生活」, 大旺社,
- 4) 「國家와 倫理」, 학문사,
- 5) 「國民精神과 國家發展」, 外大出版部,
- 6) 「民主社會와 倫理」, 지구문화사,
- 7) 「人間과 倫理」, 배종호外 2명,
- 8) 「社會와 倫理」, 國民倫理學會編,
- 9) 「倫理와 政治」, 漢陽大出版部,
- 10) 「現代史朝와 理論」, 國民倫理學會,
- 11) 「韓國民主主義 政治理念」, 노태구,

12) 「現代國家와 倫理」, 三星出版社,

13) 「倫理學」, 나남출판사 등이 있다.⁴²⁾

지금까지의 分析을 通하여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教材를 編纂하거나 選擇하는데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教材編輯課程에서 치밀한 검토와 함께 均衡있는 內容의 수록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分野別 研究動向

國民倫理學의 時代的 研究動向을 알아보기 위해서 分野別로 細分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表 5> 「國民倫理研究」誌의 時代的 研究動向(1970年代와 1980年代의 比較)

領 域	年 代	1970年代 (1973~1979年)	1980年代 (1980~1983年)	計	備 考
道 德		17(11.7%)	8(7.0%)	25(9.6%)	
倫 理 學		8(5.5%)	3(2.6%)	11(4.2%)	
韓 國 思 想		36(24.8%)	9(7.8%)	45(17.3%)	
民 主 主 義		11(7.5%)	2(1.7%)	13(5.0%)	
共 產 主 義 批 判		10(6.9%)	8(7.0%)	18(6.9%)	
北 韓 및 統 一		6(4.1%)	8(7.0%)	14(5.4%)	
政 治 社 會 化		13(8.9%)	19(7.0%)	32(12.3%)	
國 民 倫 理 教 育		33(22.7%)	49(42.9%)	82(31.6%)	
其 他		11(7.5%)	8(7.0%)	19(7.3%)	
計		145 ㉞	114 ㉞	259 ㉞	

※ 숫자는 領域別 게재논문 편수임.

<表 5>에서는 時代的 研究動向을 把握하기 위해 개괄적으로 1970年代와 1980年代를 比較해 보았는데 1970年代에는 「國民倫理研究」誌의 1號에서 8號(8권)까지를, 1980年代에는 9號에서 15號(7권)까지 묶어서 살펴보았다. 文獻分析

42) 李周憲, “國民倫理教育의 連繫性 研究,”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p.32

에 의한 國民倫理學의 變遷過程을 살필때에는 要約된 傳達과 理解의 便宜를 위하여 劃一的인 時代區分이 必要하겠지만 研究對象이 된 研究誌의 出刊週期가 一定치 못한 關係로 보편 타당성이 배제될 염려도 있지만, 한편 研究誌의 권수를 볼적에 1970年代는 8권, 1980年代에는 7권으로 時代區分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난한 것으로 생각한다.

研究誌의 게재論文편수를 比較한다면, 1970年代(7年間)에는 전체 259편의 논문중 145편이고, 1980年代에는(4年間) 114편으로 80年代에 들어와서 급격한 研究의 진척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研究들의 主題가 어떻게 變遷되어 왔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現象은 道德, 倫理學의 領域과 韓國思想의 경우 70年代와 80年代를 比較해 볼때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즉 70年代에는 道德, 倫理學領域이 각각 17편(18%), 8편(6%)이던 것이 80年代에 들어서서는 道德이 8편(7%), 倫理學이 3편(3%)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韓國思想의 경우도 70年代에는 36편(25%)이나 되던 것이 1/3배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國民倫理學의 理論的 體系化와 關聯시켜 볼때 크게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또한 民主主義에 關한 研究도 70年代의 11편(8%)에서 80年代의 2편(2%)으로 급격히 감소되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70年代 維新體制下的 韓國的 民主主義의 土着化로 크게 부각되었던 점과 그 時代의 主流로 빛어진 傾向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 民主主義領域은 어느 時代를 莫論하고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分野이므로 이에 대한 積極的인 研究姿勢가 아쉽다고 하겠다.

반면에 政治社會化領域은 70年代의 13편(9%)이던 것이 80年代에는 19편(17%)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共產主義批判과 北韓 및 統一에 關한 研究도 꾸준한 研究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國民倫理教育領域에 대한 관심은 다른 領域에 比하여 월등히 높은 傾向이 있는데 이는 國民倫理學의 定立단계에서 必然的으로 뒤따르는 現象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基礎學問分野에 依存하여 모색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비로서 學的 體

系化 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基礎作業으로 研究가 집중되는 것이다.

分野別 研究動向과 더불어 國民倫理學의 歷史 및 變遷過程을 살펴본다면 1940年代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즉 國民倫理教育의 歷史를 5 단계로 區分할 수 있겠는데⁴³⁾

첫째, 제 1 단계 (1945 年度이후, 해방직후) : 社會生活科 中心의 民主市民教育의 時期

둘째, 제 2 단계 (1950 年代) : 道義時間의 특설도 道義教育과 反共教育의 強化 時期

셋째, 제 3 단계 (1960 年代) : 民族教育의 強調時期

넷째, 제 4 단계 (1970 年代) : 統一教育의 強調時期

다섯째, 제 5 단계 (1980 年代) : 人間中心教育과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強化 時期

이상의 것을 요약한다면 우리나라의 道德教育, 反共教育, 民族教育을 包含하는 國民倫理教育은 제 1 단계 (1945 ~ 1950 年)는 國民道義教育期로 倭色抹殺運動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이며, 제 2 단계는 (1951 ~ 1962 年) 反共道德教育期로 볼 수 있으며, 제 3 단계 (1963 ~ 1970 年)는 國民倫理教育期로 高等學校까지 國民倫理科目을 설강하여 강화시켰으며 제 4 단계는 (1971 ~ 1975 年) 國民倫理教育이 大學에까지 강화되었던 시기이며 제 5 단계 (1976 ~ 1979)는 各급 학교의 教育過程이 개편되기 시작하고 國民倫理教育이 강화되다가 한 때 批判을 받던 시기이고 제 6 단계 (1980 ~ 現在)는 國民倫理教育에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강화하기 시작한 時期라 하겠다.⁴⁴⁾

그리고 國民倫理教育의 발전단계별로 그 經過를 보면⁴⁵⁾

43) 柳炯鎮·姜煥國, 前掲書, pp.69~124.

44) 李周憲, 前掲書, p. 8.

45) 曹點煥, “韓國國民倫理教育診斷,” 國民倫理研究 第 15 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3), p.60.

- I) 反日教育：1945 ~ 1950 年
- II) 反共教育：1950 ~ 1960 年
- III) 反共道德教育：1960 ~ 1968 年
- IV) 國民倫理教育：1968 ~ 1976 年
- V) 國民精神教育：1976 ~ 1979 年
- VI) 이데올로기批判教育：1980 ~ 現在

最近 國民倫理教育의 傾向은 다른 分野보다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에 重點을 두고 있다. 特히 大學에서는 國民倫理를 I 部와 II 部로 나누어 1 學年에서는 「國民倫理 I」에 해당하는 內容으로 人間, 社會, 倫理等의 內容을 다루고 있으며 2 學年에 들어서서는 「國民倫理 II」로 共產主義, 統一, 北韓實情, 民主主義 等의 內容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國民倫理教育에서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問題는 날로 그 重要性을 더해 간다고 하겠다.

이러한 變遷過程을 살핀후 分野別 研究動向을 알아보고져 한다. 國民倫理學의 綜合的 性格에 비취 林秀茂의 4 個領域은 매우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 國民倫理學의 研究動向을 把握하는데 指針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領域分類는 이미 1981 年 5 月 ‘全國 師範大學 國民倫理教育科 協議會’에서 발표된 바 있었다.⁴⁶⁾

林秀茂의 경우는 教科目을 分析하는데 이 4 個 領域을 利用하였지만 廣의로 볼 때 이것도 國民倫理學의 研究主題와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으므로 이 研究에 適用시켜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分析을 통하여 「國民倫理研究」誌의 研究主題別 領域은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즉 道德 및 倫理學은 倫理 및 社會思想領域으로, 韓國思想과 民主主義는 韓國思想과 政治의 領域으로, 政治社會化 및 國民倫理教育은 政治社會化와 教育方法으로 各各 分類하였다. 이러한 分類는 朴容憲이 國民倫理教育科

46) 林秀茂, “國內大學 國民倫理科 커리큘럼 研究,” 國民倫理研究 第 14 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2), p.8.
 本文에서 4 個領域을 I) 理念 및 社會思想, II) 韓國思想 및 社會, III) 共產主義 批判 및 北韓問題, IV) 政治社會化 및 教育方法으로 제시하고 있다.

協議會에서 教育課程開發研究報告書로 發表되었던 領域分類에 의거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內容分類를 살펴본다면 1974年 國民倫理教育研究會의 세미나에서 검토, 確認된 內容을 들 수 있는데 첫째, 現代社會와 倫理, 둘째, 민족문화의 전통, 셋째, 민주주의의 理念과 실제, 넷째, 공산주의 비판, 다섯째, 민족의 진로등으로 나누고 있다.⁴⁷⁾

이러한 領域分類에 따라 分野別 研究動向을 살펴보면,

1) 倫理 및 社會思想

오늘날의 격변하는 社會와 時代에서 要求되는 것은 우선 價値觀의 定立이며 이를 위해서 國民倫理學에서의 倫理意識의 確立은 必然的이라 할 수 있다. 價値觀은 우리 社會가 發展해 나가는데 그 方向을 提示해주고, 그 基盤을 造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各 個人의 倫理意識은 건전한 道德的, 헌신적인 民族觀, 투철한 國家觀, 이상적인 世界觀으로 집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이러한 점에서 國民倫理의 使命은 우리들 자신의 精神的 과제를 올바르게 선정, 모색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課題解決을 위한 合理的인 方法論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特히 大學教育에서의 教育이란 人格陶冶라 할 수 있는데 人格陶冶를 倫理 教育으로도 볼 때, 大學教育의 重要任務를 차지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倫理教育은 國民倫理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家庭·社會·學校의 三位一體가 되어 努力해야 할 문제이다. 習慣的인 倫理教育은 제 2天性과 같은 것이므로 無意識的 判斷의 基準이 되므로 가장 實効性 있는 教育이라 할 수 있다.⁴⁹⁾

둘이켜 보면 韓國의 教育은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西歐思潮를 流入하면서 方向意識과 價値意識이 결여된 教育으로 일관해 왔으며, 그러한 放任的인 세대와 기풍의 층만, 價値觀의 결여, 傳統文化遺產이나 精神遺產을 계승하려는 努力이 부족했

47) 洪雄善, 前掲書, p.313.

48) 國民倫理編輯委員會編, 新國民倫理 I·II (서울; 大旺社, 1981), n.3.

49) 羅炳述, “大學生の 倫理教育에 對한 管見,” 國民倫理研究 第3號(서울; 共信文化社, 1974), pp.141~151.

던 것이 사실이다.⁵⁰⁾ 이러한 위기상황일수록 國民의 倫理觀 形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道德은 반드시 時代의 特殊相이나 國民生活의 特殊相에 依存하는데 특히 國民生活의 特殊相과 國民의 氣質등은 各 國民에 있어서 特色있는 國民倫理의 發達을 가져온다.⁵¹⁾ 즉 現實의 道德은 모두 國民의 特色을 띠고 있는 道德이며 道德의 普遍的 特質은 이 特殊한 現實의 道德의 바탕위에서 存立할 수 있다.⁵²⁾

Soreley 에 의하면 “ 倫理란 단순히 실제적 行動에만 關聯되는 것이 아니고 옳고 善한 行動과도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또한 實際的 行動을 위한 規則을 설명해주는 어떤 이상도 包含된다.”⁵³⁾ 고 하였듯이 倫理의 概念은 包括的이다.

그러므로 國家生活의 存續과 發展을 위해서 必要한 價値觀과 世界觀을 그 社會의 構成員들에게 習得시키며 倫理的 規範들을 內面化시켜서 生活속에서 훈련을 쌓을 수 있게 유도해 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만약 道義를 認知的 判斷 能力의 發達側面에만 考察한다면 자칫 價値基準의 混亂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천성없는 空論이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⁵⁴⁾

그리고 倫理教育은 傳統的인 우리의 倫理的 價値나 社會的 倫理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未來의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倫理的 價値를 習得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人類共同의 倫理的 問題, 世界的 次元에서의 倫理問題가 주요 관심사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未來의 市民을 위한 倫理教育을 위해서는 個人的 次元의 倫理的 價値와 國家的 次元의 倫理的 價値와 더불어 世界的 次元의 倫理的 價値도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⁵⁵⁾

倫理教育은 우리社會의 傳統的 價値觀, 오늘의 우리社會가 당면한 倫理的 問題,

50) 柳炯鎮·姜煥國, 前掲書, p.20.

51) 金仁濟, 現代社會와 國民倫理 (서울; 日新社(倫), 1982), p.13.

52) 前掲書, p. 15.

53) 金璟東, 人間主義社會學 (서울; 民音社, 1978), p.137.

54) 李政泰, 倫理와 倫理教育 (서울; 培英社, 1980), p.170.

55) 소흥렬, “未來의 市民을 위한 倫理教育,” 2000 年の 韓國과 오늘의 大學, 東西 教育研究所 (서울; 梨大出版部, 1981), p.10.

未來의 人類社會가 바라는 倫理的 人間像 또는 理想的 世界像등이 考慮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哲學的이며 政治的인 이데올로기의 問題로까지 接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本研究의 基礎資料인 <表5>에 根據하여 道德과 倫理分野의 研究動向을 볼 때 70年代의 研究에 比하여 80年代의 研究는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道德分野는 70年代의 12%에서 80年代에는 7%로, 倫理分野는 70年代의 6%에서 80年代에는 3%로 거의 半배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것은 時代的인 關心度에 依存한 結果이겠지만 좀더 넓은 시야에서 볼 때 큰 시사점을 提示해 준다고 하겠다. 즉 人間의 根源을 探究하는 문제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困難하다는 점이다.

倫理教育 및 道德의 本質에 關한 問題의 核心은 그것이 지식전달의 教育이나 或은 態度變化의 教育이나로 汲約될 수 있는데 倫理教育이란 問題狀況에 對해서 취해야 할 行爲가 무엇인지 가르키는 教育이므로 知的 能力도 勿論 重要하지만 窮極目的은 그 지식의 실천에 있으므로 스스로 생각하고 判斷하는 能力이 더욱 重要하다고 할 것이다.



2) 韓國思想 및 韓國政治

民族精神을 昂揚하고 國民倫理를 確立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課題中的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民倫理를 確立하는 것도 勿論 重要하지만 우선 우리 國民의 思想 내지 精神狀態를 把握함이 必要하다. 그러한 研究가 수행된 후 에 새로운 倫理觀이나 價値觀을 수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價値觀은 우리의 思想 즉 傳統思想에 根據하여 形成되어 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韓國思想의 要請이 절실해진 것이다.⁵⁶⁾

國民精神과 關聯시켜 韓國思想의 方向을 摸索한다면 우리國民의 主体性을 들 수 있다. 國民精神教育에서의 主体性이란 教育의 目的과 內容과 方法의 主体性보다도 國民으로 하여금 主体的 自我를 形成하려는 정신을 소유하는데 있다.⁵⁷⁾ 國民

56) 黃山德, “어디다 國民倫理를 세울 것인가,” 國民倫理研究 第2號(서울; 共信文化社, 1974), p.130.

57) 柳桐鎮, “國民精神教育의 方法에 關한 研究,” 國民倫理研究 第15號(서울; 螢雪出版社, 1983), p.10.

의自我에 對해서 도산 안창호선생도 人格革命과 自我革命으로 自己完成을 기할수 있다고 하였듯이 國民的 自我의 實現은 곧 우리의 思想에 對한 자부심을 수반하게 된다.⁵⁸⁾

韓國思想에 對해서 단편적으로나마 그 수용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地政學的으로 思想이나 文化 等に 있어서 中國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受容해 가면서 獨自的인 發展을 이룩하였던 것이다.⁵⁹⁾ 예를들어 三綱五倫이나 仁·義·禮·智·信의 五常, 그리고 忠義의 精神 等은 儒教를 通하여 우리 國民意識속에 내면화되어 定着되었으며 佛敎도 韓國에서는 어디까지나 現實的이며 호국적인 性質을 가졌었다. 또 이것은 후에 國難克服의 歷史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國民精神의 기반을 이뤄왔다. 그리고 天主教는 中國을 通해 傳來되면서 西學의 도입과 함께 開化에 큰 影響을 주게 된 것이다. 이처럼 韓國思想은 우리의 歷史에 주인공 노릇을 묵묵히 다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對한 研究動向을 살펴본다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않다. 그 예로 <표 1>과 <표 5>를 通해서 研究傾向을 時代別로 比較할때 確實해질 것이다. <표 1>에서는 전체 게재논문 259 편중 韓國思想領域이 45 편으로 17%에 달한다고는 하겠으나 <표 5>의 時代的 區分을 통해서 比較해보면 1970年代와 比較해서 1980年代의 顯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17%에 해당되는 45 편의 論文中 70年代에는 36 편으로 무려 25%나 차지하던 領域이 80年代에 들어서서는 9 편으로 단지 8%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분율도 比較한다면 무려 3배나 감소했다는 結論인데 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韓國思想과 더불어 우리의 現實的 課題라 할 수 있는 政治問題 곧 民主主義에 對한 研究動向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民主主義의 概念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가치와 關聯된 根源된 물음이며 삶에 있

58) 安秉煜, “教育立國論과 國民倫理,” 國民倫理研究 第1號(서울; 共信文化社, 1973), p.70.

59) 金斗憲, “우리 國民性的의 考察,” 國民倫理研究 第8號(서울; 螢雪出版社, 1979), pp.9~20.

어서 倫理的·政治的 決斷의 問題이다.⁶⁰⁾ 그러나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受容된 民主主義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으면서, 民主主義란 移植이 不可能하다는 意識이 점차 擴散되었다. 결국 民主主義란 創造的으로 發展시켜야 하며 主体的으로 土着·定立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통해 國民 各者의 自我가 實現되고 참된 人間的 生活樣式이 確立되며 民族的 自負心과 긍지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民主主義와 關聯하여 教育的 側面의 變遷過程을 보면 해방후 民主主義教育을 지향해 오다가 民主主義理念에 따라서 점차 教育制度도 定着되고 教育方法의 개발, 教育內容의 選擇이 可能해졌다. 그후 6.25 동란으로 共產主義에 對備하여 反共教育을 표방하였으며 그후 국제정세의 變化로 勝共教育 또는 統一教育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⁶¹⁾

韓國思想에서의 比較와 마찬가지로 民主主義領域에 對한 研究를 검토해볼 때 이도 역시 감소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表1>에서 보여 주듯이 本研究의 研究對象이 된 259 편의 論文中 民主主義에 對한 研究는 겨우 13 편 뿐으로 5%에 머물고 있으며 <표5>에서도 70年代에는 11 편이나 되던것이 80年代에 들어서서는 단지 4 편만이 게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傾向은 아마도 70年代 維新體制下的 韓國的 民主主義의 土着化에 의한 주류로 빛어진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學問에 있어서의 時代的 變動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지나친 時代性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特히 民主主義領域에 對한 研究의 소홀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이며 보다 꾸준한 研究姿勢가 아쉽다고 하겠다.

3) 이데올로기批判 및 統一問題

Ideology 라는 말은 「信念」「世界觀」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思想全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特定한 思想을 指稱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여기서

60) 새 精神教育研究委員會編, 새 國民倫理 (서울; 博英社, 1981), 서문인용.

61) 李荃浩, 前掲書, p.13.

우리가 문제시하는 이데올로기는 바로 Marx - Leninism을 뜻한다. 또 여기서의 이데올로기란 客觀的 眞理를 통해 普遍妥當性을 추구하는 면보다는 黨派性을 띠는 特殊性을 갖는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Ideology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오히려 批判教育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韓國이 처한 時代的 特殊狀況이라 할 수 있겠다.⁶²⁾ 그러므로 한국적 시각에서의 이데올로기 批判이란 바로 共產主義理論批判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必要性이 80年代에 와서 급속도로 대두되고 강화된 이유는 그동안의 학원사태에서 겪은 심한 고통때문이라 여겨진다. 李奎浩도 '80年 6月 11日 전국대학총·학장회의에서 학원사태의 악화요인으로 大學生들에게 合理的인 政治的 判斷을 위한 훈련의 소홀을 들었는데, 1980年 7月에는 “大學生들은 그들 자신의 觀念的 허위의식때문에 불안과 저항감을 갖게 되는바, 觀念的 허위의식이란 우리의 歷史的·社會的 現實에 對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공허한 觀念에 의한 폐쇄적 의식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모든 國民 倫理教育은 政治教育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1981年 1月에는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으로 표명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을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같이 Marx - Leninism의 Ideology를 把握해야 하며 이에 대한 폭넓은 知識을 必要로 하는데, Marxism은 19 C 유럽의 思想과 理論들을 批判的으로 흡수·體系化한 것이므로 19 C 유럽의 知性史를 우선 把握해야 할 것이다.⁶⁴⁾ 이처럼 共產主義理論에 對한 學習과 研究가 꾸준할때 비로소 Ideology의 克服이 可能하다고 하겠다.

이데올로기 批判領域에 對한 <表 1>과 <표 5>의 研究動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批判과 北韓 및 統一問題에 關한 研究를

62) 조성대,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의 韓國的 狀況과 視角,” 國民倫理研究 第15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3), p.247.

63) 金昌基, 大學·大學人 (시련받는 이데올로기 批判) (朝鮮日報, 1983. 1. 28日), 10면.

64) 조성대, 前揭書, p.238.

統合하여 살펴보면 共產主義批判이 18 편, 北韓 및 統一問題는 14 편으로 研究誌의 총계재논문 259 편중 32 편이 게재된 결과 12.3 %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時代的으로 比較해본다면 < 표 5 >에서 알 수 있듯이 70 年代의 16 편(11 %)과 80 年代의 16 편 (14 %)로 지속적인 研究傾向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70 年代와 80 年代를 比較할때 게재논문편수는 동일하지만 70 年代의 11%에서 80 年代의 14 %로 상승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그만큼 이데올로기批判教育에 對한 강화시책에 연유한 것으로 사료된다. 柳炯鎭이 밝힌바와 같이 80 年代는 그 단계별로 볼 때 이데올로기批判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4) 政治社會化 및 教育方法

a) 政治社會化

칸텔은 “教育이란 國家가 그 國家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臣民 내지 市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분히 政治社會化의 必要性을 內包하고 있다고 보인다. 우선 政治教育의 概念부터 把握한다면 社會가 要求하는 바람직한 人間教育인 동시에 体制의 維持·發展을 위해 요구되는 價値觀, 規範, 生活樣式등을 國民들의 意識에 內面代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⁶⁵⁾

어느시대 或은 어느社會이든 教育을 計劃하고 제도화할때 그 社會体制의 存續과 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人間育成을 기대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모든 計劃과 제도화된 教育現象의 이면에는 언제나 政治教育이 內在된다. 그리고 이 政治教育은 첫째 人間教育이며 둘째, 社會的인 狀況에 대한 바른 판단을 위한 지식체계 곧 思想教育이며 셋째, 國家社會안에서 질서있는 生活을 위한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國家社會의 体制性格과 生活環境의 變化, 精神史的인 狀況에 따라 다양하지만 現代의 어느社會이든지 그 重要性은 인정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特修狀況을 감안할 때 그러한 政治教育의 必要性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⁶⁶⁾

65) 金恒元, “政治教育論,” 國民精神教育研修(제주도教育委員會 教育研修院編, 1981), p.151.

66) 李奎浩, 前揭書, p.16.

政治社會化란 政治文化의 引入過程이며 이 政治社會化過程을 통해 政治文化를 얻게되며, 이 政治文化는 國民들의 政治的 定向(political orientation)이나 政治的 性向(political predisposition)의 양태를 把握하는 것이며⁶⁷⁾ 이러한 政治社會化의 意義는 學生들이 어떤 政治的인 知識, 價値, 態度, 行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政策的인면에 치중하여 學生들의 政治社會化가 미래 政治体制의 技能發揮와 존속에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에 관심을 나타내는데 있다. 여기서의 內容은 주로 政治知識, 政治認識, 市民義務感, 政治信賴, 政治效能, 政治參與 등이 包含된다.⁶⁸⁾

한 社會의 政治社會化過程은 그 社會의 安定과 不安定, 持續성과 變化, 政治參與에 많은 影響을 주는데 이에대한 研究로 体系的인 研究는 1950年代 후반이며 1959年의 Hyman의 研究結果 비로소 政治社會化가 政治학의 주요 관심영역이 되었다고 한다.⁶⁹⁾

또한 体系的인 조사로 1931年에 출판된 Charles. E. Merriam이 편집한 「市民養成」을 들 수 있다.⁷⁰⁾

政治社會化에 대한 몇몇 국가의 예를 들어본다면, 서독의 경우는 1950年代에 이미 政治教育에 대한 方法·검토가 있었으며 美國도 1960年代부터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를 보였다. 그리고 日本이나 自由中國에서도 이에 對한 많은 研究와 努力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들의 研究에 못지않게 우리의 傳統的 政治文化를 發展的 政治文化로 國民의 意識內에 內面化시키도록 研究 努力해야 할 것이다. 政治文化의 效果的 變容을 위해서는 의도적·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건전한 政治社會化를 통해서

67) 金恒元, 前掲書, p.151.

68) 鄭世九, “政治社會化過程의 分析,” 韓國政治學會報 第12輯, 1978, p.280.

69) 金恒元, “政治社會化 동인으로서의 高等학교 교과서 分析,”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80), p.14.

70) R.E.Dawson ; K. Prewitt .K.S.Dawson,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pp.5~6.

바람직한 政治文化로 형성되어야 한다.⁷¹⁾

지금까지의 政治社會化에 對한 研究傾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國民倫理研究」誌의 총 259 편의 게재논문중 政治社會化에 관한 研究論文은 무려 32 편으로 거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政治社會化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結論이며 이를 또 時代的으로 比較한다면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70年代에는(國民倫理研究誌 1號~8號까지) 총 145 편중 13 편으로 약 9%에 머물었는데 80年代에 들어서서는(國民倫理研究誌 9號~15號) 총 114 편 중에서 19 편으로 무려 17%에 달하고 있다. 이는 政治社會化의 時代的 要請에 부응한 것으로 政治社會化 또는 政治教育의 강조는 오늘날의 特殊狀況이라고 생각한다.

結論的으로 政治教育(政治社會化教育)은 概念的으로 볼 때 價値語이며 어떤 주어나 교조를 傳達하는 것이 아니라 논박될 수 있는 價値를 傳達해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道德的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훌륭한 정치는 그 자체가 政治教育이며 Karl Jaspers의 표현을 빌리자면 “民主主義 理念에서의 政治는 그 자체 教育”라는 것 처럼 민주주의는 道德的으로 정당화될 뿐만아니라 하나의 교육원리로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미래전망을 의도한다면 현 체제안에서의 삶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論議의 한계를 擴張시켜주는 개방성이 必要하다.⁷²⁾ 또한 政治社會化教育 자체가 독단에 빠질 危險을 막기 위해서는 對立과 비판과 選擇의 여지를 보장해 주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包括的 의미의 건전한 政治社會化過程을 조성하기 위해서 國民倫理學의 중요성은 재고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教育內容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도 國民倫理學의 理論的 体系化는 絶실하다고 하겠다.

71) 李澤微, “政治文化的變容과 國民倫理學의 役割,” 國民倫理研究 第11號 (서울; 螢雪出版社, 1981), p.134.

72) 朴淳英, 前掲書, p.151.

b) 教育 方法

國民倫理科目은 固定된 學問的 背景을 가진 것이 아니고 知識內容의 構造的 性格을 갖는데 知識理解·知的能力的 啓蒙보다는 價値觀形成에 그 目標을 둘 수 있다. 學習指導理論과 工學의 發達로 教授方法의 現代化는 教育의 System化라는 概念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概念의 모호성도 있지만 어떤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必要한 諸要素를 有機的으로 統合하는 內的 體系를 세워야 할 것이다.⁷³⁾

그러나 國民倫理教育方法의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수업형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學問的 性格을 가진 國民倫理學으로서의 새로운 教育方法이란 對話와 討論을 통해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100~200 名의 대 단위수업형태를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⁷⁴⁾

특히 1954 年 美國에서 새로운 授業形態로 등장되었던 Team Teaching 法이 도입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美國의 경우와 우리의 현실은 그 수업법의 출발부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美國에서는 小人數學習의 經濟的 浪費를 막기 위해서, 또 우수교사의 効率的 利用方法을 모색하고자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多人數學級의 문제를 小人數로 나누려는 의도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交替講義라는 概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Team Teaching 이라는 授業形態가 과연 大學에서도 적용이 될지 의문점이 많다. Team Teaching 이란 수업조직의 한 形態인 양식이고 2人이상의 교사가 協力하여 같은 학생으로 된 單位集團의 수업전체를 責任지는 것으로 그 定義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方法은 經濟적 여건상 단시일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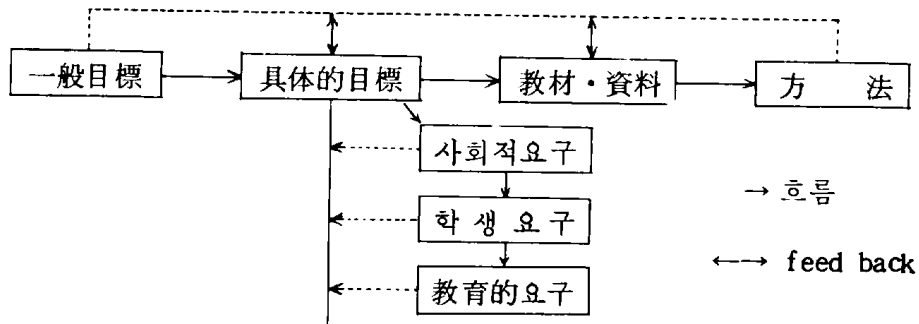
以外에도 Glaser 의 教授模型에 따르면 討議法(discussion method), 講義法(lecture method), 問答法(question and answer method), 折衷法(compromise method) 등이 있는데 교재나 학습내용의 성격에 따라 受容하여 學習效果를 極大化 시

73) 康宇哲, “國民倫理教育의 方法,” 國民倫理研究 第1號(서울; 共信文化社, 1973), p.35.

74) 孫仁鉄, “國民倫理教育方法의 摸索,” 國民倫理研究 第10號(서울; 螢雪出版社, 1980), p.185.

킬 수 있도록 教育方法改善에 對한 研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⁷⁵⁾

이러한 教育方法改善을 위해서 進술한 System化의 理論을 받아들여 國民倫理에 適應한다면 다음과 같은 授業形態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⁷⁶⁾



이상의 內容을 요약하여 國民倫理學에서의 教育方法을 몇가지로 나열해 보면, 첫째, 國民倫理教育에 대한 教育行政家들의 인식과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하며, 둘째, 대단위강의보다 소단위 group 形態로 대화와 討論의 과정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정보의 전달, 교환을 위한 効果的인 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즉, 教育技術의 現代化로 教育方法에 있어서 計劃樹立에서 부터 協力體制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教育方法의 改善이 土着化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國民倫理教育方法 領域에 對한 <표 1>과 <표 5>의 研究動向을 보면 총 259 편의 게재논문중 82 편이나 게재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그리고 他分野 보다는 많은 研究를 보이고 있는데 70年代에도 33 편으로 22.7%이며 그후 80年代에는 무려 49 편으로 42.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國民倫理教育의 시행단계에서 必要한 기초작업이며 이를 기반으로 效率的인 教育方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5) 曹點煥, “韓國 國民倫理教育診斷,” 國民倫理研究 第 15 號(서울 ; 螢雪出版社, 1983), pp.59 ~ 62.

76) 康宇哲, 前揭書, p.45.

IV. 提 言 및 結 論

本 研究는 國民倫理學의 學的 定立 내지 体系化를 위한 하나의 시도인 것이다.

國民倫理研究誌와 國民倫理教材 分析을 통한 國民倫理의 領域別 研究의 動向과 앞으로의 研究課題를 研究한 本 稿는 다음과 같이 그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倫理 및 社會思想分野의 研究動向을 볼 때 가장 특이한 것은 70年代에 비하여 80年代의 研究傾向이 매우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즉 道德分野에서는 12%에서 7%로, 倫理分野는 6%에서 3%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研究의 급격한 變動은 학문의 体系的인 發展에 큰 障礙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바, 앞으로 이 分野에 對한 不斷한 研究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 韓國思想과 韓國政治分野에 對해서도 미비한 점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전체적인 게재편수의 백분율로 볼 때에는 韓國思想의 경우 17%에 달하지만 時代的인 研究動向을 살펴보면, 70年代에는 25%나 되던것이 80年代에 들어서는 8%에 머물고 있다.

民主主義에 對한 研究를 볼 때 전체 13편 (5%) 중에서 70年代에만 11편이나 게재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韓國思想과 民主主義에 對한 基本的인 研究과 아울러 꾸준한 研究姿勢가 아쉽다고 보여진다.

3. 이데올로기 批判領域인데 共產主義批判과 北韓 및 統一問題에 관한 研究로 1970年代의 11%에서 '80年代에는 17%로 계속적으로 꾸준한 研究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Ideology 批判의 문제는 우리의 特殊한 狀況과 時代的인 要請에 副應하여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고 統一哲學으로까지 발전했으면 한다. 우리의 正體性 (Identity)를 確立하기 위해서도 Ideology 批判教育은 불가피하며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과 信念으로 思想的 도전을 克服해야 할 것이다.

4. 政治社會化와 教育方法分野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또한 特殊한 狀況에 기인한 것으로 把握되며, 좀더 깊이 있는 研究가 있었으면 한다. 特別히 教育方法에 對해서는 70年代에는 33 편이었는데 80年代에는 무려 49%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國民倫理學의 体系化를 위한 기초연구라고 여겨진다.

이상의 4個領域別로 그동안의 研究動向과 앞으로의 課題를 살펴보았는데, 以外에도 國民倫理學의 体系化를 위한 세부적인 研究領域이 있을 것으로 보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研究를 기대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單 行 本)

- 1) Dawson, R. E., Prewit, K., Dawson, K.S.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Toronto: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3.
- 2) Dieal Bell. 이데올로기의 終馬. 서울:三星美術文化財團, 1980.
- 3) James, A.B. Teaching Strategy for the Soaal Studies. Brown and Company, 1977.
- 4) 國民倫理教授要綱.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 5) 國民倫理教材編纂會編. 新國民倫理. 서울:靑文社, 1983.
- 6) 國民倫理學會編. 國民倫理(I·II). 서울:螢雪出版社, 1982.
- 7) 國民倫理編輯委員會編. 新國民倫理I·II. 서울:大旺社, 1981.
- 8) 金瓏東. 人間主義社會學. 서울:民音社, 1978.
- 9) 金汝河·金善亨. 現代社會와 이데올로기. 서울:大旺社, 1982.
- 10) 金仁濟. 現代社會와 國民倫理. 서울:日新社, 1982.
- 11) 金泰吉·沈在龍·李容弼 共著. 國民倫理. 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 12) 金亨錫·趙宇鉉·裴宗鎬. 國民과 倫理. 서울:博英社, 1982.
- 13) 東西教育研究所. 200 年の 韓國과 오늘의 大學. 서울:梨花女大出版社, 1981.
- 14) 朴俊圭·金泰吉·朴容憲·高永復. 國民倫理教育科의 教育課程 體系化를 위한 基礎研究. 서울: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 15) 새精神教育研究委員會編. 새 國民倫理. 서울:博英社, 1981.
- 16) 梁好民·申一澈外 共著. 共產主義 批判. 서울:極東問題研究所, 1981.
- 17) 柳炯鎭·姜煥國. 國民倫理教育概論. 서울:螢雪出版社, 1982.
- 18) 李奎浩. 國民倫理教育의 理論과 實際. 서울:文佑社, 1982.
- 19) 李汝泰. 倫理와 倫理教育. 서울:培英社, 1980.

- 20) 全得桂. 이데올로기論. 서울: 博英社, 1982.
- 21) 政治教育研究會編. 共產主義와 共產黨. 서울: 文佑社, 1981.
- 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民倫理學. 서울: 博英社, 1982.
- 2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研究論叢. 現代社會와 倫理. 서울: 正和印刷文化社, 1982.

(論 文)

- 1) 姜聲潤. “現代이데올로기理論과 그 批判,” 全國大學이데올로기批判 教育債任教授協議會編, 1982.
- 2) 康宇哲. “國民倫理教育의 方法,” 國民倫理研究 第1號, 1973.
- 3) 權赫奈. “國民精神教育의 方向,” 國民倫理研究 第14號, 1982.
- 4) 金大煥. “青少年의 價値觀과 倫理,” 國民倫理研究 第6號, 1977.
- 5) 金斗憲. “우리 國民性의 考察,” 國民倫理研究 第8號, 1979.
- 6) 金凡父. “國民倫理特講,” 國民倫理研究 第7號, 1978.
- 7) 金泰吉. “現代社會와 價値觀의 問題,” 國民倫理研究 第5號, 1976.
- 8) _____. “大學國民倫理現況과 問題點” 國民倫理研究 第1號, 1973.
- 9) 金昌基. “大學과 大學人,” 朝鮮日報. 1983.1.28 일자 10면.
- 10) 金恒元. “政治教育論” 국민정신교육연수 제주도교육위원회, 1981.
- 11) _____. “정치사회화 동인으로서의 고등학교 교과서분석,”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80.
- 12) 金炯孝. “國民倫理教育의 強化理由,” 國民倫理研究 第10號, 1980.
- 13) 羅炳述. “大學生의 倫理教育에 對한 管見,” 國民倫理研究 第3號, 1974.
- 14) 朴淳英. “國民倫理教育의 世界的인 추세와 과제,” 國民倫理研究 第10號. 1980.
- 15) 朴仁熙. “國民倫理教育의 深化方案,” 學生 理念指導세미나論文集. 全國大學(校)學生處(課)長協議會編. 서울: 乙文社, 1982.

- 16) 백주현. “意識改革運動과 國民倫理教育의 課題,” 國民倫理研究 第15號, 1983.
- 17) 孫仁銖. “國民倫理教育方法의 摸索,” 國民倫理研究 第10號, 1980.
- 18) 安秉煜. “教育立國論과 國民倫理,” 國民倫理研究 第1號, 1973.
- 19) 安鍾沄. “國民倫理教育課程의 改善,” 國民倫理研究 第10號, 1980.
- 20) _____. “國民倫理學의 綜合的 概念 定立에 관한 研究,” 國民倫理研究院 第12號, 1981.
- 21) _____. “國民倫理教育의 進路,” 國民倫理研究 第13號, 1982.
- 22) 裴碩源. “國民倫理教育과 人間理解,” 國民倫理研究 第15號, 1983.
- 23) 柳炯鎭. “國民精神教育의 方法에 關한 研究,” 國民倫理研究 第15號, 1983.
- 24) 柳洪烈·姜聲潤·金大煥·金文河·韓基春, “産業社會와 精神文化의 啓發” 國民倫理研究 第7號, 1978.
- 25) 林秀茂. “國內大學 國民倫理學 커리큘럼 研究,” 國民倫理研究 第14號, 1982.
- 26) 李奎浩. “政治教育의 課題와 理念,” 國民倫理研究 第5號, 1976.
- 27) _____. “國民倫理教育의 內容,” 國民倫理研究 第1號, 1973.
- 28) 李命吉. “國民倫理教育의 意義와 內容,” 國民倫理研究, 第12號, 1982.
- 29) 李碩在. “國民倫理教育을 爲한 하나의 哲學的 接近,” 國民倫理研究 第12號, 1981.
- 30) _____. “青年文化와 國民倫理學의 役割,” 國民倫理研究 第11號, 1981.
- 31) 李周憲. “國民倫理教育의 連繫性 研究,”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 32) 李澤徽. “政治文化와 變容과 國民倫理學의 役割,” 國民倫理研究 第11號, 1981.
- 33) 李昶雨. “國民倫理教育 目的의 定立,” 國民倫理研究 第10號, 1980.
- 34) 曹點煥. “韓國國民倫理教育診斷,” 國民倫理研究 第15號, 1983.
- 35) 鄭世九. “政治文化過程의 分析,” 韓國政治學會報 第12輯, 1978.
- 36) 鄭用述. “大學國民倫理教育의 課題,” 國民倫理研究 第3號, 1974.

- 37) 千玉煥·崔道熙, “國民倫理教育效果에 관한 調查研究,” 國民倫理研究 第5號, 1976.
- 38) 崔義太. “現代國民倫理教育의 本質과 그 機能,” 第13號, 1982.
- 39) 韓昇助. “國民倫理教育의 方向과 課題,” 全國大學(校)學生處(課)長 協議會編. 서울:乙文社, 1982.
- 40)_____. “國民倫理教育의 回顧와 展望,” 國民倫理研究 第10號, 1980.
- 41)_____. “國民倫理教育의 內實化 方案,” 國民倫理研究 第12號, 1981.
- 42) 玄勝鍾. “國民倫理片考,” 國民倫理研究 第1號, 1973.
- 43) 黃山德. “어디다 國民倫理를 세울 것인가,” 國民倫理研究 第2號, 1974.
- 44) 洪雄善. “國民倫理教育의 內容,” 國民倫理研究 第5號, 1976.



Abstract

The Basic Research for the Systematization of National Ethics

Hong Ok-Soon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is research is one of making attempts to take national ethics in a triangular position and to systematize it from the viewpoint of learning. By means of the analysis of the books in ethics and ethics text, we can obtain the results as follows, about the tendency of the research according to the different spheres in ethics and the research tasks we have to study hereafter.

1. The striking point of the research tendency in the field of ethics and social ideology is that the research tendency goes down in the 80's, compared with it in the 70's. In other words, in the field of morality from 12% to 7%, in the field of ethics from 6% to 3%, it went down abruptly. The hasty change of research like this will be come the chief cause of the impediment in the development of a system in learning. Hereafter, we should carry on the constant research in this field.
2. And in the field of Korean ideology and politics, there is much to be desired. When we regard the whole intermediation variable as percentage, in case of Korean ideology, it amounts to 17%,but according to the research tendency of the times, if amounted to 25% in the 70's, however it goes down by 8% in the 80's. In case of the research about the democracy, out of 13 copies (5%), we had 11 copies in the 70's, but only 4 copies in the 80's. This is a problem we cannot pass unnoticed. The fundamental research about the Korean ideology and democracy should be carried out constantly.
3. In the area of the ideology comment,the research about the communism criticism, north Korea, an unification subject also made a constant progres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May, 1983.

from 11% in the 70's to 14% in the 80's. The problems such as ideology criticism, in the special situation in which we stand and to satisfy the wishes of the tim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driven without stopping as far as unit philosophy. The education of ideology criticism is inevitable for the establishment of our identity and we should conquest the ideological challenge with a superiority and belief in good quality of the free democracy.

4. We are very much interested in the divisions of politics socialization and the methods of education, and I guess it is due to our special situation in which we stand. It has to be studied more deeply. Especially in the method of education, we had 33 copies in the 70's, however, they have increased by 49% in the 80's. This probably is considered to be the basic research for the systematization of national ethics.

With four different domains above, I tried to look into the research tendency in the past and the research tasks in the future. Besides, detailed research domains for the systematization of national ethics can be found more, I guess. More research about it can be expected, I hope.

